

## 독립협회의 민주주의 사상의 급진화: 독립신문에 나타난 후견주의로부터 정치적 행동주의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김 현 ■ 연세대학교\*\*

### 〈국문요약〉

이 글은 전통적 입장과 수정주의 입장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독립협회의 1898년 대중운동의 성격을 새롭게 검토하기 위해 독립신문의 사상의 내적 변화를 살펴본다. 독립협회에 관한 전통적 연구가 운동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수정주의적 연구가 엘리트주의적 특징을 강조했다면, 본 연구는 독립신문에서 발견되는 사상의 내적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독립협회의 1898년 대중운동에서 엿보이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독립신문의 민주주의 사상은 자유주의적 이념 위에 구축되었으며, 이런 점에서 후견주의적 면모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군주권의 제도화 실패와 그로 인한 고종의 실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독립신문의 애국주의는 저항적 성격을 띠면서 정치적 행동을 촉구하는 이데올로기로 전환되었고, 이는 독립협회의 민주주의 사상의 급진화를 촉발시키면서 이 단체의 대중운동으로 하여금 두 성격을 모두 지니도록 만들었다. 이 글은 결론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에서 발견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즉, 엘리트적 그리고 급진적 시각 간의 경쟁과 협력이 20세기 이후 한국 민주주의 사상사 연구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주제어: 독립신문, 자유주의, 대표 민주주의, 후견주의, 애국주의, 급진화

## I. 서 론

1898년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대중운동은 상당히 온건한 정치적 개혁을 요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21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 논문의 초고에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자께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E-mail: hyunkim@yonsei.ac.kr)

구했지만, 운동방식만을 놓고 본다면 ‘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독립협회는 당시 인구가 약 20만이었던 서울에서 약 1만 명 이상 규모의 대중 집회를 개최해 고종에게 개혁을 요구했으며, 이는 일시적이거나 전국적 지지를 받기까지 했다(신용하 2006, 364). 당시 주한미국공사는 이런 이유에서 독립협회의 대중운동을 “평화적 혁명”이라고 평가했다(Burnett 1989, 52). 독립협회는 이와 같이 백성의 참여에 힘입어서 내각의 전면 교체를 달성했고, 또한 중추원 관제 개편을 통한 ‘반-국민의회’ 수립 약속도 고종으로부터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고종은 헌의6조의 실행과 신중추원 운영에 관해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대표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다짐하기 까지 했다.

이 일련의 사건은 학계의 주목을 이룬 시기부터 받아왔는데,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두 입장으로 나누어져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 논쟁을 벌여 왔다. 한편에 선 이 일련의 사건을 “조선조 역사상 최초로 군민이 직접 체결한 ‘계약’으로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의 체결과정”이며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신기원으로 높게 평가했다(김홍우 2007, 722; 신용하 2006, 463; 정용화 2005, 54). 이는 독립협회 사상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전통적 입장으로, 대표적 연구로는 신용하(2006), 유영렬(2005), 정용화(2005)가 있다.<sup>1)</sup> 이 연구에 따르면, 독립협회·독립신문은 “자유권론과 평등권론에 기초하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권력이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론”을 주창했고,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입헌군주제를 확립해서 “민권에 기초한 근대민주주의적 국민국가”를 수립하고자 했으며, 앞서 언급한 독립협회의 대중운동은 이런 사상의 논리적 귀결이었다(신용하 2006, 246, 266).

하지만 수정주의 입장의 연구는 독립협회·독립신문에 엘리트주의적 성격이 있음에 주목했다. 신용하(1976)의 초기 연구 이후 일군의 학자들은 독립협회·독립신문이 군주권을 옹호하고 우민관에 입각해 엘리트주의적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런 이유에서 군주권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단체로 평가했다(최덕수 1978; 주진오 1995; 이나미 2003). 또한 1898년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대중운동 역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았는데, 최근 이런 견해를 새롭게 제시한 대표적 연구는 곽금선(2018)이다. 그는 독립협회의 목적이 사적 정치영역에서 민중을 동원해서 공적 정치영역으로 진입하는 것 즉,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에 있었으며, 대중운동을 이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았다(곽금선 2018, 405). 즉, 독립협회라는

1) 그 외에도 김용직(2004), 김홍우(1994; 2007), 박영신(1996), 이황직(2007; 2020), 장명학(2007), 한홍수(2015), 박찬승(2013) 등이 이런 입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사적 정치단체는 민을 동원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민’은 수단으로 간주될 뿐이었다.

본 연구는 이 두 입장의 연구에서 아직까지 검토하지 못했던 독립신문·독립협회 사상의 내적 변화에 주목해서 독립협회의 대중운동에 관한 기존 논쟁에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전통적 입장과 수정주의는 표면상 서로 상반된 견해를 표방하지만 그 전제에서 본다면 공통점이 있다. 즉, 양자는 공히 독립협회 사상의 일관성을 전제하고 있다. 한편에선 독립협회가 일관되게 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이런 사상적 요인이 1898년의 대중운동을 촉발시켰다고 본다. 이에 반해 다른 한편에선 독립협회는 항상 엘리트주의적 성격을 띠었으며, 1898년의 대중동원은 순전히 자신들의 권력 장악을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했다고 본다. 기존 연구들은 독립협회 사상을 이렇게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실제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태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이 글은 이 사상의 내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독립신문에 주목한다.

1898년 독립협회·민회의 대중운동이 가능했던 데에는 1896년부터 발행되었던 독립신문의 계몽적 역할이 있었다. 독립신문은 사실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실었으며 이는 독립협회가 초기의 계몽단체에서 후기의 정치운동세력으로 전환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sup>2)</sup> 이 독립신문에 민주주의 사상이 담겨있었다는 것은 독립신문을 발간했던 서재필 자신이 주장했던 바이다. 그는 1938년의 회고록에서 갑오개혁 당시 자신이 조선인에게 “민주주의의 원리”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포부를 갖고서 귀국했다고 밝혔다(Jaishon 1999, 26).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그가 두 번째 귀국했던 시기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상(偶像)과 같은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있었고(콘체 2021, 179), 서재필이 회고록을 쓰고 있던 1930년대에도 이미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그가 회고록에서 밝힌 19세기 말 조선에서 고취시키고자 했던 민주주의 사상은 19세기 자유주의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이 글은 우선 민주주의 사상의 이러한 자유주의적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독립신문에 나타난 문명국의 관념을 먼저 검토한다. 서구 문명진보사관의 영향을 받은 문명국의 관념은 19세기 후반 일본과 조선의 근대정치사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데, 이 글에선 독립신문의 문명국에 발견되는 천부인권으로서 자유권과 이에 근거한 백성의 경제적 자립 관념을 분석해서 독립신

2) 독립신문의 계몽적 역할에 관한 대표적인 서술로는 신용하(2006).

문의 문명국이 자유주의적 이상을 담고 있었음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신문이 대표 민주주의 즉,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대표제를 옹호했다는 것과 이와 동시에 이런 민주주의의 옹호가 백성에 대한 후견주의적 태도와 공존하고 있었음을 살펴본다.<sup>3)</sup> 마지막으로, 문명국을 떠받치는 민주적 시민의 육성을 목표로 했던 독립신문의 애국주의가 고종의 ‘폭정’에 직면해 저항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민주주의의 즉각적 실현을 제한하던 후견주의적 태도로부터 이탈하게 됨을 보이고, 나아가 이런 현상이 독립협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급진적 요구로 이어졌음을 설명한다.

## II. 자유주의적 문명국 구상: 자유권에 기초한 자주독립한 백성의 공동체

독립신문은 문명국의 건설을 목표로 했다. 조선을 서구 문명국의 반열에 올려 놓고자 했던 것인데, 이 신문이 기대했던 문명의 상대란 1896년 8월 4일 영문판 독립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날짜의 논설은 인간의 욕망이란 질적으로 상이한 차원의 필요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은 저차원적 필요에 해당되는 물질적 요구로부터 출발해서 고차원적 필요인 지적이며 도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보해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전한 의미에서 문명이란 모든 차원에서 인간의 요구가 만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The Independent* 1896/08/04).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문명국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모든 수준에서 실현되는 공동체를 의미했다.

독립신문은 조선이 이런 의미에서 문명국이 되기 위해선 조선인이 서구 문명국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문 발간 후 일

3) representative democracy는 흔히 ‘대의 민주주의’로 번역되지만 이 글에선 representative를 모두 ‘대표’로 번역해서 ‘대표 민주주의’로 쓴다. 이는 일차적으로 독립신문·독립협회에서 이 개념이 ‘대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윤치호에 따르면, 1898년 독립협회 회원은 자신을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이라고 자임하곤 했는데(『尹致昊日記』 1898/05/05),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에 관한 기사에서 “대한 전국 二千万동포 인민을 대표한 우리 독립 협회 회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독립신문』 1898/10/27). 또한 이와 동시에 ‘대표’란 표현의 사용은 19세기 일본에서 고안되어 한국에도 현재 통용되는 번역어 ‘대의’가 representation의 다양한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이런 이유에서 ‘대표’란 번역어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관후(2016)의 주장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마 지나지 않은 1896년 4월 21일자 논설에서 조선 여성도 “자유한 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독립기념일을 다룬 7월 7일과 프랑스혁명기념일을 다룬 7월 16일자 기사는 자유권의 중요함을 역설했다(『독립신문』 1896/04/21, 1896/07/07, 1896/07/16). 또한 1897년 1월 19일자 논설은 “조선 인민의 목숨과 재산과 자유권”이 보호되기를 축원했으며, 1897년 2월 2일에도 조선인이 자유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촉구했다(『독립신문』 1897/01/19, 1897/02/02).<sup>4)</sup>

독립신문이 이처럼 자유를 요구했던 것은 이 자유가 있어야 비로소 조선인도 인간답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자유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인권(人權)으로 이해된 것인데, 이런 사고는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이미 발견된다. 그는 시민적 자유를 “각기(各其) 인간(人間)의 일인(一人)되는 신분(身分)으로 향유(享有)하는” 권리(『西遊見聞』, 112) 또는 “인(人)이 세(世)에 생(生)함에 인(人)되는 권리(權利)”란 뜻에서 “인권(人權)으로 받아들였다(『西遊見聞』, 112, 114). 즉, 자유는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누려야만 하는 권리였다.<sup>5)</sup> 독립신문 역시 이러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자유권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지 못하는 권리”이고, 이런 이유에서 이 권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독립신문』 1897/03/09). 만약 이런 천부의 권리를 타인에게 빼앗긴다면 이는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독립신문은 조선을 문명국으로 바꾸어놓기 위해선 조선인이 자유를 향유하는 것과 동시에 이 자유를 바탕으로 각자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896년 4월 30일 사설은 조선인도 “무엇이든지 배워 자기 손으로 벌어 먹을 도리를” 해서 세계 앞에 “자유독립한 사람”이 될 것을 촉구했고(『독립신문』 1896/04/30), 11월 10일 논설 역시 조선인들이 “재조를 닦고 마음을 다스려 . . . 벼슬하는 사람은 직무를 힘쓰고 장사하는 사람은 생리를 힘쓰고 농사하는 사람은 가색을 힘쓰고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재조 닦기를 힘쓰고 공장의 일하는 사람은 물건을 잘 만들어 각각 그 힘으로 먹고 각각 그 업을 지켜” 자주독립한

4) 이외에도 자유권을 다룬 논설로는 『독립신문』 1896/12/26, 1897/02/18, 1897/06/10, 1897/08/19, 1897/08/24를 참고할 수 있다.

5) 유길준은 자유를 이런 의미에서 인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권리를 “인생의 불가탈 불가요불가굴(不可奪不可搖不可屈)하는 권리(權利)이자 “자기(自己)가 자훼(自毀)하기 전(前)에는 만승(萬乘)의 위(威)와 만부(萬夫)의 용(勇)이라도 요탈(搖奪)하기 불능(不能)”한 성질의 것이며, “현우귀천빈부강약(賢愚貴賤貧富強弱)의 분별(分別)”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향유해야 한다고 보았다(『西遊見聞』, 113-114).

삶을 살 것을 독려했다(『독립신문』 1896/11/10). 또한 같은 해 12월 8일 논설에서도 신문은 재차 조선인들이 “자주 독립하는 뜻으로 살아 의식을 자기 손으로 벌어먹게 하고 의식을 사람마다 제 힘과 제 재조와 제 밑천을 가지고 벌어먹고 살게”할 것을 역설했다(『독립신문』 1896/12/08).

독립신문이 각 개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성으로 이처럼 강조한 것은 경제적 자립이 상업/통상의 활성화와 맞물리면서 조선의 문명화를 앞당긴다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독립신문은 지면을 통해 상업 특히 통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개항장의 추가 개설을 통한 통상의 확대를 옹호하기도 했다(*The Independent* 1896/06/09, 1896/05/19, 1897/07/08; 『독립신문』 1898/06/09). 통상을 통해 조선으로 유입되는 서구 문명국의 수입품은 “강력한 문명화의 수단”으로서 조선인들에게 서양의 물건들이 가진 우월성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적절한 필요”를 자각하게 하면서 각자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The Independent* 1896/08/04). 즉, 독립신문은 외부로부터 유발된 이런 자극 하에서 조선인이 자기의 힘과 지식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자주독립하고자 한다면 조선의 제 분야에서 진보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이처럼 독립신문은 상업/통상을 기반으로 해서 백성 각자가 자주독립할 수 있는 시민이 되기를 기대했으며, 이렇게 된다면 조선은 문명의 상태로 진보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독립신문의 이러한 생각은 19세기 서구 자유주의가 추구했던 이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벨라미(Richard Bellamy)에 따르면, 19세기 서구 자유주의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윤리적 자유주의적 이상에 있었는데,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토대로 해서 상호 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협력적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했다(Bellamy 1992, 1-8). 19세기 중후반 자유주의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사회의 건설에 있었으며, 이 목적을 위해 한편에선 정부 권력의 제한을 추구했지만 다른 한편에선 권력을 사용해서 이러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기도 했다(Jones 2000, 40). 독립신문이 추구한 문명국은 서구 자유주의가 추구한 이러한 이상을 조선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었다.<sup>6)</sup>

6) 이러한 문명국의 이상은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유길준이 표방했던 것과 유사한데, 유길준의 문명국 구상에 관해선 김현(2020).

### III. 대표 민주주의론: 후견주의적 태도

독립신문은 이런 자유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대표 민주주의를 도입하고자 했다. 밀(J. S. Mill)에 따르면 대표 민주주의란 전체 인민 또는 그 중 다수가 자신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을 통해 최종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였으며, 이 정제 하에서 인민은 정부에 대해 주인으로서의 위상을 지녔다(Mill 1977, 422). 그는 이 정치체제가 다른 정부 형태에 비해 우월한 이유 중 하나를 개인의 권리 보호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수호자이며, 이런 점에서 그들 스스로가 정치에 참여하는 대표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었다(Mill 1977, 404). 달리 말하자면, 대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게 해주는 정부 형태인 것이었는데, 독립신문 역시 이와 비슷한 논리에서 대표 민주주의를 옹호했다.

대표 민주주의에 대한 독립신문의 생각이 잘 드러난 글은 지방관 선출을 촉구했던 1896년 4월 14/16일자 독립신문의 논설과 1898년 11월 16/17일 독립신문에 게재된 서재필의 편지이다. 이에 따르면, 조선/대한인은 “나라 주인”이며 그들의 관리는 “중” 또는 “고입한 사환”인데(『독립신문』 1896/04/14, 1898/11/16), 이런 발상은 이미 지적되어 왔듯이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서 유래한 것이다(전봉덕 1981, 269-270; 정용화 2005, 54). 그 대표적 사례를 「버지니아 권리선언(The Virginia Bill of Rights)」의 제2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부여된 것이고 따라서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정부 관원들은 국민의 수탁자요 공복(公僕)이고, 항상 그들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Helderman 1941, 227).<sup>7)</sup> 버지니아 권리선언에 표현된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한 세기가 거의 지난 19세기 중후반 밀과 같은 자유주의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밀은 전체 인민이 정부운영에 최종적 통제력을 가져야 하며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백성이 “나라 주인”이라는 독립신문의 생각은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선언」과 이에 동의하는 19세기 중후반 밀과 같은 ‘민주화된 자유주의자(democratized liberal)’의 발상과 공명하고 있었다.<sup>8)</sup>

7)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at all power is vested in, and consequently derived from, the People; that magistrates are their trustees and servants and at all times amenable to them.

미국 「버지니아 권리선언」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5조와 6조에서 대표제를 제시했으며, 이런 대표제는 1787년 제정된 연방헌법에서도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미국에서 이러한 대표제의 도입은 라이언(Allan Ryan)이 지적한대로 처음으로 대표 민주주의를 실험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이는 19세기 밀과 같은 사상가들의 대표 민주주의에 대한 옹호와 비교될 수 있다(Ryan 2012, 605-606). 독립신문은 이러한 미국이나 영국의 대표 민주주의의 옹호자들의 사상과 실천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었다. 당시 전제정치의 옹호자였던 조선주재 러시아 군무관 스트렐비츠키는 보고서에서 미합중국 시민인 서재필의 독립신문이 “저급하고 진부한 자유주의 이론”을 설파하며 “미국식 입헌군주제”를 정치적으로 옹호한다고 비난했는데<sup>9)</sup>, 이는 독립신문이 미국에서 지배적이었던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대표제를 옹호했음을 의미했다.

독립신문은 “나라 주인”인 백성이 선거를 통해 관리를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1896년 4월 논설에선 지방 관리를 중앙에서 임명하지 않고 지역 백성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독립신문』 1898/04/14, 1898/04/16). 또한 1897년 이사벨라 비숍이 자신의 여행기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rs)』에서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자치를 훌륭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자 재차 지방 관리의 선출을 요청했다(*The Independent* 1897/01/16). 물론, 독립신문은 즉각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표제의 실행을 촉구하진 않았지만 앞선 논설이 보여주듯이 지역 차원에서 선거를 통한 대표의 선출을 요청하면서 대표제의 도입을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했다.

독립신문이 이처럼 일차적으로 지방에서 주민 투표에 의한 관리 선출을 주장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대표제의 도입이 부패와 착취로 얼룩진 조선의 현 체제를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The Independent* 1897/01/16; 『독립신문』 1896/04/14). 독립신문은 사람이란 누구든지 타인에게 폭군이 되고 싶어 하며 약자를 억압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의 권력을 감시하지 않는 이상 권력의 남용은 억제될 수 없다고 보았다(*The Independent* 1896/12/03). 하지만 선거에 의한 지방관의 선출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관은 “백성의 중”이고 백성이 그들의 “상전”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들이 백성을 잘 못 섬기면 백성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

8)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민주화된 자유주의자’에 관해선 Adcock(2014).

9)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Ⅱ(1894-1899), 6. ПГАВМФ, ф.9, оп.1, д.31, лл.98~120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fs&levelId=fs\\_016r\\_0060&types=r](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fs&levelId=fs_016r_0060&types=r)  
 (2021/07/08 검색).



이라고 생각했다(『독립신문』 1896/04/16). 즉, 선거를 통해 지방관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표제의 도입은 백성의 권리를 침해하던 부패와 착취의 체제를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독립신문은 대표제의 도입이 각 사람에게 자유와 독립의 기쁨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방관에 대한 선거를 통해 관리들이 주민을 두려워하게 되어 권력 남용이 사라지면 각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보전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유와 독립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었다. 또한 이에 더 나아가 각 사람은 더 잘 살고자 하는 의욕을 품게 되리라고 기대했다(*The Independent* 1897/01/16). 이런 변화는 곧 문명국의 건설에 요구되는 시민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독립신문은 지방관 선거가 부패와 착취의 체제를 혁파해서 백성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각 사람이 자유와 독립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보았다. 즉, 제한된 수준이긴 하지만 지방에서 대표제의 도입은 자유주의적 이상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었다.

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자유주의적 이상을 실현한다는 독립협회의 이러한 구상은 1896년에는 지방관의 선거에 국한되었다면 1898년 4월에 이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회 설립의 요구로 발전된다. 하지만 1898년 의회 설립을 요구했던 독립신문의 입장은 이 신문의 이념적 지향에서 본다면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은 아니었다. 독립신문은 초창기부터 비록 지방관의 선거를 요구했던데 반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표제의 본격적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백성의 교육이 우선이라는 후견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이는 1897년 7월 27일자 신문의 논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설은, 조선이 자주독립한 문명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전국에 학교를 세워서 전 백성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교육을 받아 독립의 뜻을 품은 소수의 선각자들에게 국사를 일정 기간 맡길 것을 제안했다. 독립신문은 소수의 선각자들이 국정을 전담해서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펼친다면 오래지 않아 조선인들이 자주독립하는 국민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독립신문』 1897/07/27).

독립신문은 비록 대표 민주주의를 지향했지만 이 논설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완전한 의미에서 대표제의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신문은,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조선을 하루아침에 문명국의 반열에 올려놓길 원하는 열렬한 애국자나 열광적 개혁가들을 향해 문명이란 법이 아니라 “교양 있는 마음의 산물” 즉, “건강한 교육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관점에서 독립신문은 조선에서 급진적 개혁이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논설

필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시도는 야만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서양 옷을 입혀 놓는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조선의 급선무는 무지에 빠져있는 백성을 가르치는 사업이며, 이 교육이 실현되면 문명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The Independent* 1896/08/06).

조선인은 아직 야만인과 같이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독립신문의 이러한 후견주의적 태도는 밀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는 『대표정부론(*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에서 문명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회는 정치적 자유를 아직 향유할 수 없으며, 그런 사회에선 진보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진보적 독재’도 오히려 적절한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밀에 따르면, 일국의 정부 형태의 개혁은 그 나라 국민이 이미 도달한 발전단계에 부합해야만 했다. 즉, 특정 정부형태의 도입 여부는, 한 사회의 특정한 발전 단계가 인민에게 요구하는 지덕을 그 새로운 정부형태가 증진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10)</sup> 그는 이것이 새롭게 발견된 진리이며, 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정치이론이 과거의 이론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과거 이론에 의하면, 영국이나 프랑스에 적합한 대표 민주주의가 동일하게 베두인족이나 말레이족에게도 적합한 최선의 정부형태였다. 하지만 새로운 이론은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각 사회에 적합한 정부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Mill 1977, 393-394).

밀은 이러한 이론에 근거해서 국민 자신이 자연스럽게 진보할 수 있는 탄력성을 보유하지 못한 저발전 상태의 국가 즉, 야만국의 경우 최선의 정부형태는 강력한 독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유형의 정부가 매우 큰 다른 결점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 정부가 그 나라 국민이 현 상태 보다 더 발전된 단계로 진보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단점은 용납될 수 있다고 보았다(Mill 1977, 394-395, 567). 앞서 살펴본 독립신문의 사설은 밀의 이러한 주장과 거의 흡사했다. 독립신문은 조선이 아직 야만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표제의 즉각적 도입은 불가능하고 계몽된 지

10) 밀은 공동체가 저차원의 상태에서 고차원의 상태로 발전해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공동체를 통치하는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정부의 여러 요소들 예를 들면, 개인들에게 행사되는 권위의 성격과 수준이나 권력의 분산, 명령과 복종의 조건 등은 한 공동체가 저차원에서 고차원의 상태로 진보해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Mill 1977, 394). 밀은 문명의 상태에 따라 다른 형태의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영국과 같은 문명의 발전단계에선 투표 역시 비밀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표제에 관한 이러한 그의 독특한 사고에 대해선 홍철기(2018).

식인의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만과 문명을 구분 짓는 한 범주로서 인종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밀과 독립신문은 비슷했다. 밀은 영국의 피와 혈통에 속하지 않는 식민지에 대표제를 도입하려는 구상에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우리 핏줄'이 아닌 '그들'의 경우 열등해서 대표제를 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Mehta 1999, 15). 그런데 밀에게 있어 이런 인종 간 우열이란 생물학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야기한 역사적 열등성에 불과했으며, 이런 점에서 일정 수준 개혁을 통해 따라잡을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Goldberg 2005, 130). 이와 유사하게 독립신문도 백인종, 흑인종, 동양 인종을 구분하면서 백인종이 우월하다고 평가했지만(『독립신문』 1897/06/24), 이러한 우열 관계는 '우월한 타자'에 대한 본질적 열등성의 문제는 아니었다. 즉, 조선인은 인종적으로 열등한 것은 아니었다. 독립신문은 사실에서 조선인이 일본인이나 중국인과 비교할 때 양자의 장점만을 습득해서 동양에서 가장 우월한 인종 즉 '상등 인종'에 속하며, 이런 이유에서 교육만 제대로 받는다면 조선이 동양 최고의 문명국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독립신문』 1896/05/30, 1896/12/03, 1897/02/23; *The Independent* 1896/12/03).<sup>11)</sup>

#### IV. 애국주의의 성격 변화: 고종의 '폭정'과 저항적 이데올로기로의 전환

독립신문은 조선에 대표 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자유주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선 우선 위로부터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히 국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독립신문은 창간 직후부터 논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했는데,<sup>12)</sup> 이 고

11) 박노자는 독립신문의 인종 담론을 사회진화론이란 맥락 속에서 해석했다. 이와 관련 해선 Tikhonov(2010)의 ch.3. 하지만 독립신문의 인종담론을 사회진화론과 곧장 연결시키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9세기 사회진화론은 우생학을 거쳐 인종주의로 발전해갔다. 즉, 진화론적 원리에 입각해서 특정 인종이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는 이론이 구축되었는데, 이는 미국에선 대내적으로 흑인의 차별적 대우를, 대외적으로는 동유럽국가로부터의 이주에 대한 반-이민정책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와 관련해선 Lombardo & Dorr(2006)와 Jones(2013). 그런데 독립신문의 인종 담론에는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에 바탕을 둔 인종주의적 특색은 보이지 않는다.

12) 그 방법 중 하나는 애국가를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독립신문이 민간에서 지어낸 다양

육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으로 자립한 국민의 육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독립신문의 논설은 조선인으로서 애국의 길은 각자가 교육을 받아 서구 문명국의 국민처럼 자주독립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고 역설했다(『독립신문』 1896/04/25, 1896/04/30, 1896/11/10, 1896/12/08). 이러한 메시지가 담긴 독립신문의 애국주의는 조선인은 아직 중앙정부의 차원에선 대표 정부를 운용할 수 없다는 이신문의 후견주의적 태도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즉, 아직 정치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백성은 교육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자각해야 하며, 나아가 이런 권리를 바탕으로 자주독립한 삶을 영위해나가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독립신문의 문명국 건설론이 애국주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그런데 독립신문의 눈에 이러한 애국적 국민의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전제권력에 집착하고 있던 고종이었다. 신문의 주필이자 사장인 서재필은 1880년대 초반부터 고종의 정치지도력을 불신했고 이로 인해 개화당의 일원으로 갑신정변에 관여하기도 했었다. 그는 고종의 통치 하에선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진보적 인물이 왕의 신병을 확보하고서 개혁을 왕에게 강요하는 것 외에는 달리 개혁의 방안이 없다고 생각했다(Jaisohn 1999, 8-17). 그의 이런 생각은 아관파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 시기 고종이 자신의 신변에 대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국가의 보위나 명예는 고려할 수 없는 상태 즉, 통치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처해있었다고 생각했다(Jaisohn 1999, 30-31).

하지만 러시아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갑오개혁 시기 취해진 군주권의 제도화 조치에 분개하면서 전제권력의 회복을 도모했는데(김현 2019, 14), 서재필과 독립신문은 고종의 전제정치에 대한 집착이 개혁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보았다(*The Independent* 1896/06/25). 따라서 그들은 군주권을 새롭게 제도화해서 개혁성향의 대신들이 국정을 주도할 수 있기를 원했다. 10월 신의정부 관제 제정에 대한 독립신문의 논설은 이러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었다. 독립신문은 신의정부 관제를 통해 군주의 대권을 명목상으로 인정해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의정부 대신

---

한 애국가를 게재한 것은 1896년만 한정해도 10건(『독립신문』 1896/05/09, 1896/05/19, 1896/07/04, 1896/07/07, 1896/07/23, 1896/08/01, 1896/09/01, 1896/09/05, 1896/09/10, 1896/09/15)이다. 물론 독립신문이 애국주의를 처음으로 주창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유길준이 『서유견문』에서 애국주의를 주창했고, 동시기 일본유학생들에게서도 발견된다. 특히 유길준의 애국 담론은 독립신문의 애국주의의 초기 논조와 유사해 보이는데, 그들의 애국주의에 관해선 김소영(2011). 한편, 독립신문의 애국주의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민족주의의 맥락 속에서 독립신문의 애국주의가 흔히 검토되었는데, 대표적 연구로는 권보드레(2003)와 쓰키야시(2014)가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애국주의의 정치적 성격 변화에 주목하지 못했다.

들이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정치적 타협이 실현되기를 기대했다(*The Independent* 1896/10/01). 그러나 현실은 독립신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신의정부 관계 제정은 오히려 고종이 법치에 반해서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권력 행사가 더욱 심각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김현 2019, 21), 이런 측면에서 그의 통치는 ‘폭정(despotism)’에 근접해 있었다.

18세기 유럽의 지식인들에 따르면, ‘폭정’의 특징은 권력 소유자의 변덕스럽고 임의적인 성격에 따라 권력이 변덕스럽게 행사되는 데에 있었다. 그들이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을 가리켜 ‘동양적 폭정(oriental despotism)’이라 칭한 것도 그 정치체제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Blanning 2008, 278-279). 아관파천 이후 구제도의 복구를 요구했던 보수적인 유학자들은 비록 ‘전제정치’를 옹호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전제정치’란 자신들이 ‘도덕예의의 정치(道德禮義之政)’라고 불렀던 유교적 예치에 근거한 군주의 통치였으며(『승정원일기』 1897/03/20), 이는 유럽의 지식인들이 그려낸 ‘동양적 폭정’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또한 독립신문을 포함한 개화파는 19세기 제정러시아의 개혁가들이 추구했던 것과 유사하게 법치와 전제권력이 조화를 이루는 정체를 추구했다(김현 2019, 19). 이에 반해 이 시기의 통치는 구법은 폐지되었지만 신법은 시행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동양적 폭정’에 근접했는데, 독립신문은 이러한 폭정으로 인해 조선인이 애국심을 함양할 수 없다고 보았다(『독립신문』 1897/06/10).

따라서 서재필은 1897년 3월 개설된 교전소에 참여해서 재차 고종의 권력 남용을 제어하고자 했다(『尹致昊日記』 1897/07/02). 하지만 이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이후 독립신문의 애국주의에는 변화가 생겨났는데, 이런 변화의 단초는 이미 1896년 12월 영문 논설에서부터 발견된다. 이 논설은 한 젊은 양반의 연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연설 요지는 백성이 권력 남용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양반에 따르면, 현재 조선 정부가 백성을 향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이유는 백성이 저항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이란 대개 모두가 타인에게 폭군이 되고자 하며 약자를 억압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데, 조선인은 노예 정서를 갖고서 이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에 폭정이 지속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조선인들이 정부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조선인의 즉각적 정치행동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계몽을 촉구했다. 즉, 노예 정서를 먼저 씻어내야 되며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이 전능한 하나님의 눈앞에서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지식과 이에 근거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갖게 되는 “생래적 권리”를 배워야 함을 역설했다(*The Independent* 1896/12/05).

젊은 양반의 이러한 연설은 18세기 영국 급진주의자인 프라이스(Richard Price)가 1789년 영국 명예혁명을 기념하는 협회에서 한 연설인 「나라사랑론(Discourse on the Love of Our Country)」의 주장과 흡사했다. 프라이스에게 있어 자유란 신이 내린 은총이었다. 신은 정의롭고 자비로우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로써 자유를 지녔다. 그런데 이 자유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은 권좌에 앉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자 하며, 그로 인해 모든 정부는 폭정으로 귀결되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국민은 항상 깨어있어 권력 남용에 저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이렇게 경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의무라고 주장했는데(Price 1789, 11, 19-29), 그의 이런 주장은 독립신문이 보도한 조선의 젊은 양반의 연설과 그 취지를 같이했다.<sup>13)</sup>

그런데 이 젊은 양반의 연설은 영문판 독립신문에만 실렸는데, 신문은 저항이 필요하다는 연설의 주장이 아니라 이런 의식을 갖은 젊은이의 등장 그 자체에 고무되었다. 신문의 편집자는 이 연설을 했던 청년과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육성된다면 조선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낙관했는데(*The Independent* 1896/12/03), 이런 문체의식에서 같은 날 한글판 독립신문은 논설에서 현재 조선에 필요한 것은 적절한 지도를 통해 조선인들이 가진 좋은 성품을 발휘하게 하고 그들의 정신적 능력을 계발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독립신문』 1896/12/03). 지금 조선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역사의 대기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교육을 받는 것이었다.

독립신문이 조선인을 여전히 미숙한 존재로 여기면서 역사의 대기실에 두고자 한 것은 자유주의적 이상으로서 문명국의 실현과 백성의 정치참여가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신문이 발간된 1896년 4월 의병운동은 그들의 이러한 고민을 잘 보여준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인해 봉기한 의병들은 아관파천 이후에도 정부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서 구제도 복구와 일본군 소탕 등을 명분으로 내걸고 정치·군사적 저항을 이어갔다. 독립신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에 저항했던 의병을 향해 충성/애국과 반역이

13) 프라이스는 정치적으로 급진주의자였지만 동시에 목회자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의 애국주의는 기독교적 사상 위에 구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적 색채가 조선 양반의 연설에도 그대로 묻어나는데, 이는 그가 서재필이라는 '정치적 복음주의자'(Choi 2020)의 교육을 받았던 학생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재필은 배재학당에서 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해 강연을 했는데(이황직 2020, 137), 젊은 양반의 연설에 관한 논설이 배재학당에 관한 글의 후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는 배재학당의 학생이었던 같다(*The Independent* 1896/12/03, 1896/12/05).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일반 백성들이 의병의 이러한 '잘못된' 인식에 호응할 것을 우려하면서 자신들의 '올바른' 지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의병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립신문은 조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이며 이를 가르쳐줄 수 있는 지도자라고 믿었다(『독립신문』 1896/04/09, 1896/04/11).

독립신문의 이런 후견주의적 태도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1897년 4월에서부터 이다. 4월 17일자 논설은 정부가 폭정을 멈추고 나라의 본의에 맞는 통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선 백성에겐 '항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논설은 백성의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한 고을의 통치와 비교해서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고을의 수령이 폭정을 자행한다면 그 주된 책임은 백성에게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일이 생겨나면 백성들이 합심하여 그로 하여금 수령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항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의 폭정을 저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백성 '노릇'하는 것인데, 그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수령은 수령 '노릇'을 잘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이었다(『독립신문』 1897/04/17).

논설의 필자는 마을 단위에 적용된 이런 저항적 애국주의를 중앙정부에도 곧장 적용했다. 즉, 한 마을의 백성이 백성 '노릇'을 잘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인은 정부가 폭정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감시해야 하고 만약 폭정이 발생한다면 이에 항의하는 것이 백성의 의무라고 주장했다(『독립신문』 1897/04/17). 이런 주장은 수개월 전 조선인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후견주의적 태도와는 확연히 달리 정치적 행동을 촉구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전환을 의미했다.

## V. 독립협회 민주주의 사상의 급진화: 대중운동과 하원 설립의 요구

1897년 중반 독립신문의 애국주의는 정치적 행동을 촉구하는 이데올로기로 급진화되어 갔지만, 이것이 독립신문의 조선인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국민을 만들고자 하는 독립신문의 구상이 고종의 폭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한 반작용이 후견주의로부터의 이탈과 저항적 애국주의를 촉발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갑작스러운 전환은 사상 내부에 긴장과 모순을 초래할 수 있었다. 즉,

저항적 애국주의에 의해 호명된 국민이 자유주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독립신문은 이런 내적 모순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며, 백성이 백성 ‘노릇’을 잘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4월 17일 논설은 폭정을 막기 위해선 백성이 백성 ‘노릇’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백성이 이 ‘노릇’을 잘 하는 방법은 나라의 법률과 규칙, 장정에 근거해서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독립신문』 1897/04/17). 여기에서 논설은 이 법률, 규칙과 장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신문 전체의 논조를 놓고 보면 이는 갑오개혁 이후 제정된 일련의 개혁법안과 그에 따른 규칙들을 의미했던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이 법과 규칙들은 문명국이라는 자유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독립신문은 이해했다. 1897년 10월 7일 독립신문 영문판 논설에선 자유는 법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할 만큼 독립신문은 법이 각 사람의 자유와 그에 바탕을 둔 자립적 시민 형성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했다(*The Independent* 1897/10/07). 따라서 독립신문은 이 법과 규칙을 “나라에 뿌럭지오 주춧돌”이라고 상찬하면서 백성이 정부의 폭정을 판단하는 잣대는 바로 이 법에 있다고 주장했다(『독립신문』 1897/04/17).

독립신문은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저항적 애국주의가 폭민의 등장으로 귀결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했는데, 이런 생각은 1897년 8월 12일자 논설에서 엿볼 수 있다. 이 글에선 앞서 언급한 논설과 유사하게 남의 권리를 빼앗기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라가 존재하며 그들을 방치하면 그들의 욕심이 계속 커져서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백성 전체의 기풍에 악영향을 끼쳐 나라 전체가 “협잡하는 무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선 이에 맞서 저항하는 백성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논설은 바로 그 직후 이런 주장이 동학이나 의병의 행동을 정당화 할 것을 극히 경계하면서 양자의 차이를 설명했다. 동학이나 의병은 비록 불법한 일에 분노해서 정부에 저항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도 불법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비도(匪徒)”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면서 애국의 직분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가 그 여부는 법률을 알고 이에 근거해서 행동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독립신문』 1897/08/12). 독립신문은 이처럼 자유주의적 이상을 구현하는 법과 규칙을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저항적 애국주의가 자유의 근간이 되는 범치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후견주의적 입장에서 독립신문은 여전히 의회 설립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적 행동을 촉구한 독립신문의 애국주의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발상을 갖는 길에 들어서도록 유도했다. 즉, 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백성 각자가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애국 담론은 자연스럽게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백성의 대표 선출이 불가피하다는 발상을 고취시켰다. 비록 독립신문은 1897년의 시점에 아직 의회 설립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신문의 영향을 받은 독립협회 회원과 서재필의 가르침을 받은 협성회 회원은 1897년 후반에 접어들면 저항적 애국주의의 논리적 귀결로 나아갔다. 1897년 8월에 발간된 대조선독립협회회보에서 신용진은 의회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大朝鮮獨立協會會報』 제18호), 협성회는 “우리나라에서 상·하의원을 설립함이 정치상에 급선무로 결정함”이란 주제로 24차 토론회에서 논쟁했다(홍성준 2001, 10). 이와 같이 독립신문의 애국주의는 독립협회와 협성회 등의 단체에서 대표제 정부에 대한 요구를 촉발시켰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이듬해 독립협회가 러시아의 간섭을 계기로 대중운동을 벌여나가자 자연스럽게 의회 설립 요구도 이 과정에서 공론화되었다.<sup>14)</sup>

그런데 독립협회 지도자였던 서재필이나 윤치호에게 있어 의회 설립은 정치 상황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들은 강력한 개혁정부의 구축을 원했고 백성은 아직 개몽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국가수준에서 의회 설립은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었고, 4월 중순 궁내부 고문관이었던 러젠드르(Charles Le Gendre)가 제안했던 자문기구의 설치가 더 타당했다. 러젠드르는 서재필, 윤치호와 4월 14일 나눈 대화에서 대신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예전의 절대주의”를 고수할 순 없지만 “완전한 대표정부”를 도입하기에도 부적합했다. 따라서 “나라 안에서 가장 개화된 요소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이러한 개혁을 통해 “강력한 정부”를 즉각 수립하지 않으면 프랑스혁명과도 같은 혁명이 조선에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尹致昊日記』 1898/04/14).<sup>15)</sup>

러젠드르의 이러한 주장은 서재필이나 윤치호의 생각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 역시 강력한 정부를 원했고 대표 정부의 즉각적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러젠드르의 제안에 반대했는데, 이는 러젠드르의 구상에 고종의 전제권력 제한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자문위원회는 “대신들의 행동에 대한 견제”에 목적을 두고서 이 제도의 도

14)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해선 신용하(2006)의 제5장.

15) 러젠드르의 개혁구상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김현숙(2017).

입을 위해 “(고종에게) 그가 이 제도로 인해 돈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 하는 방식으로 그의 전제권력에 의존하고자 했다(『尹致昊日記』 1898/04/14).<sup>16)</sup> 하지만 서재필과 윤치호는 고종의 전제권력의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러젠드르의 구상을 배척하는 대신 시기상조로 여겼던 의회 설립 논의에 동의한 것이었다.<sup>17)</sup>

이와 달리, 독립협회에는 이미 독립신문의 저항적 애국주의에 고취되어 완전한 대표정부의 건설을 촉구하는 급진파가 생겨났다. 그들은 1898년 4월 3일 토론회에서 ‘의회원을 창설하여 국가의 중요문제를 결정할 것’과 ‘의회원의 의원 선거는 일본 및 구미의 제도를 참작·제정하여 민망(民望)있는 인물에게 그 직을 맡길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재필은 “금일의 정세가 도저히 그러한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의기를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인지를 계발하고 국부를 증진하여 인민자주의 신정신과 신 기풍을 함양하는 것이 국가의 급선무이며 호언장담하는 것은 국가의 경륜에 추호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의회의 전면 설립이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한홍수 2010, 471).

하지만 독립협회에 강력한 소수를 차지했던 이 급진화된 사상을 가진 인물들은 대중운동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을 인민의 대표라고 자임했으며(『尹致昊日記』 1898/05/05), 7월 일련의 개혁을 요구하는 2차 상소를 결의한 독립협회 토론회에서 1차 상소에 대한 고종의 답변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세삼창을 하자는 제안에 반대했다. 그들은 만세삼창은 단순한 형식에서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尹致昊日記』 1898/07/10), 나아가 2차 상소문을 제출하기 위한 회의에서도 만세삼창을 거부했고 이에 대다수는 동조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전하께서 선정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나는 백만 번이라도 흔쾌히 만세삼창을 하겠소.

16) 그는 궁내부고문으로 고종의 전제권력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있었으며, 이런 이유에서 사실상 고종의 폭정을 비호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입장 덕분에 고종의 총애를 받아 1898년 6월에는 정2품 의정부 찬부(贊務)로 임명되었고, 1899년 「대한국국제」의 제정과정에 일조하기도 했다. 러젠드르의 전제권력 수호를 위한 활동에 대해선 김현숙(2008, 229-244).

17) 특히 서재필의 고종과 왕실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는 1897년 11월 30일 배재학당의 토론회 1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서 백성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군주도 죽일 수 있다고 연설했으며(『尹致昊日記』 1897/11/30),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화군이 미국에서 성적 열망으로 잘못 처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그의 후손은 없겠군요”(『尹致昊日記』 1898/05/02)라고 할 정도로 왕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저 농담 삼아 하면서 나의 만세삼창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소”라고 말했다. 상소문을 든 사람이 회관에서 걸어 나가자 회원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없이 일어서 존경의 표시로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고 한다(『尹致昊日記』 1898/07/12). 프라이스는 「나라사랑론」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왕에게 보내는 국민의 경의란 “대중의 첫 번째 중복”인 왕과 국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는 아침이나 맹목적 숭배와 구별된다고 주장했다(Price 1789, 24-25). 윤치호는 군주에 대한 독립협회 회원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노예의 나라”인 조선에서 여태껏 볼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는데(『尹致昊日記』 1898/07/12), 이날의 저항은 프라이스가 기대했던 진정한 의미의 왕에 대한 경의에 근접하고 있었다.

저항 의식에 가득 차 있던 독립협회의 급진파는 7월 내각 교체를 둘러싸고 고종과의 힘겨루기에서 승리를 거두자 이를 계기로 삼아 하원 즉, 국민회의의 수립까지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치호는 독립신문의 논설을 빌려 하원 설립 논의가 너무 성급하고 경솔한 생각이라고 비판하면서 급진파의 요구를 잠재우고자 했다(『독립신문』 1898/07/27; 이황직 2020, 183). 이후 급진파는 이런 구상을 더 이상 표면상 요구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고종의 전제정치 하에서 타협을 추구했던 지도부의 운동 방침과 협력하면서 대중운동을 주도해갔다.<sup>18)</sup> 독립협회는 중추원 의관을 선출하기 위해 11월 5일 선거를 실시하고자 했는데, 이 날 고종은 독립협회가 반역을 획책했다는 투서를 빌미 삼아 협회의 탄압에 나섰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촛불집회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민회의 대중투쟁을 촉발시켰는데, 이 투쟁의 선두에 섰던 인물은 이승만과 같은 독립협회의 급진파이었다(『尹致昊日記』 1898/11/05). 이 대중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독립신문은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마치 현대의 촛불집회에서 읽히고도 남을 논설을 남겼다.

독립주의자들은, 한 영국 작가가 “자유로운 영국인(a freeborn Britain)이 가지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즉, 가장 신성한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부른 항의(grumbling)를 (대한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이 나라에 은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심히 타락하고 영혼 없는 사람만이 항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지지한다. “어디든 항의가 있는 곳에 희망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성적 비판주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항의에서 대항을 위한 일말의 희망을 발견한

18) 독립협회 지도부가 급진파가 주도하던 대중운동의 와중에 어떻게 고종과 정치적 타협을 시도했는지에 관해선 김현(2019, 18-20).

다. 그렇다면 계속 항의하라!(*The Independent* 1898/11/05).

## VI. 결 론

이 글은 독립협회의 1898년 대중운동의 성격을 새롭게 검토해보기 위해 독립신문의 사상의 내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독립협회에 관한 전통적 연구가 운동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수정주의적 연구가 엘리트주의적 특징을 강조했다면, 본 연구는 독립신문에서 발견되는 사상의 내적 변화에 주목해서 대중운동에서 엿보이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설명하고자 했다. 이에 따르면, 독립협회의 대중운동에 민주주의적 성격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1896년부터 발간된 독립신문은 자유주의적 색채를 띤 문명국을 수립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대표 민주주의의 확립을 추구했다. 독립신문의 이런 민주주의적 성격이 1898년의 대중운동에도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독립협회의 대중운동에서 발견되는 민주주의적 색채는 독립신문·독립협회가 추구한 사상의 논리 필연적 귀결은 아니었는데, 이는 독립신문의 민주주의론에 후견주의적 태도가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독립신문은, 조선인이 아직 대표제를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신문의 필자와 같은 개화지식인들에 의해 교육을 받는 후견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따라서 독립신문·독립협회는 교육에 특히 초점을 맞춘 위로부터의 개혁을 단행하고자 했다.

그들의 이런 생각에 변화가 생겨난 것은 위로부터의 개혁에 요구되는 강력한 정부와 이를 위한 군주권의 제도화의 실패였다. 독립신문은 신의정부 관제 제정을 계기로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개혁정부가 출범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독립신문의 이런 기대는 고종의 전제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좌절되었고 나아가 그의 통치는 문명국의 건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폭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면서 문명국을 떠받치는 국민 건설을 목표로 한 독립신문의 애국주의는 저항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 신문의 애국 담론은 조선인에게 더 이상 역사의 대기실에서 배우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치의 현실에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이데올로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저항적 애국주의는 자연스럽게 독립협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민의회의 설립을 촉구하는 의식을 갖도록 그들의 사상을 급진화시켰으며, 이런 급진화된 사상을 갖게 된 회원이 1898년 대중운동에서 국민의회의 설립을 요구하는 등 운동에 민주주의적 성격을 부여했다. 그들은 비록 운동세력에서 소수를 차지했지만 그들의 열정이 대중운동을 이

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런 열정을 가졌던 급진 개혁가들은 1898년 개혁운동의 실패 이후 점차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적 기원을 제공하게 된다.

본 연구가 제시한 독립협회의 대중운동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치의 무대에 등장했던 그 기원의 시점에서부터 민주주의를 둘러싼 두 가지의 시각 즉, 급진적 관점과 후견주의적 또는 엘리트주의적 관점이 경쟁, 협력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19세기 후반 민주주의 사상과 운동을 계승, 변형해서 20세기에 발생했던 일련의 민주주의 운동과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러한 두 가지의 경쟁·협력하는 관점을 시야에 넣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大朝鮮獨立協會會報』, 『독립신문』, 『승정원일기』,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II (1894~1899)』.

俞吉濬. 1895. 『西遊見聞』. 東京: 交詢社.

윤치호. 1973-1989. 『尹致昊日記 1~11』.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The Independent*

Burnett, Scott S. ed. 1989.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Vol. 3, The Period of Diminishing Influence, 1896-1905*.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Jaishon, Philip. 1999. *My Days in Korea and Other Essays*. Seoul: the Yonsei University Press.

### 국문자료

곽금선. 2018. “1898년 독립협회의 정치기획과 ‘충군애국(忠君愛國)’.” 『역사와현실』 107, 375-408.

권보드래. 2003. “동포(同胞), 기독교 세계주의와 민족주의: 《독립신문》의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4, 11-32.

김소영. 2011. “재일조선유학생들의 ‘국민론’과 ‘애국론’: 『親睦會會報』 (1896~1898)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6, 5-48.

김용직. 2004. “근대 한국의 민주주의 개념: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세계정치』 2, 87-115.

김 현. 2019. “개화파의 전제군주권 제한 시도(1894-1898): 고종의 정치지도력에 대한 불신과 고종과의 타협 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3(5), 5-29.

\_\_\_\_\_. 2020. “유길준의 ‘자유주의적’ 문명국 구상의 재검토: 프랜시스 웨일랜드와 존 힐 버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26(2), 57-83.

김현숙. 2008. 『근대 한국의 서양인 고문관들』. 서울: 한국연구원.

- \_\_\_\_\_. 2017. “문명담론과 독립협회의 정치체제, 그리고 러젠드르의 전제론.” 『한국사학보』 66, 199-227.
- 김홍우. 1994. “조선말기의 자유주의적 사조.” 『전환기 한국정치학의 새지평』. 서울: 나남.
- \_\_\_\_\_. 2007. 『한국정치의 현상학적 이해』. 고양: 인간사랑.
- 박영신. 1996. “‘위로부터의 개혁’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현상과 인식』 68, 41-65.
- 박찬승. 201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파주: 돌베개.
- 쓰키야시 다스히코. 2014. 『조선의 개화사상과 내셔널리즘』. 서울: 열린책들.
- 신용하. 1976. 『獨立協會研究』. 서울: 일조각.
- \_\_\_\_\_. 2006. 『(新版)獨立協會研究: 독립신문·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사상과 운동』. 서울: 일조각.
- 유영렬. 2005. “윤치호의 민주정치외식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4, 5-31.
- 이관후. 2016. “왜 “대의민주주의”가 되었는가?: 용례의 기원과 함의.” 『한국정치연구』 25(2), 1-26.
- 이나미. 2003.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서울: 책세상.
- 이황직. 2007. “근대 한국의 초기 공론장 형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협성회와 독립협회의 토론회를 중심으로.” 『사회 이론』 32, 63-93.
- \_\_\_\_\_. 2020. 『서재필 평전: 시민정치로 근대를 열다』. 서울: 신서원.
- 장명학. 2007. “근대적 공론장의 등장과 정치권력의 변화: 《독립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6(2), 27-54.
- 전봉덕. 1981. 『韓國近代法思想史』. 서울: 박영사.
- 정용화. 2005. “입헌민주주의의 수용과 정치체제의 변동.” 『한국정치연구』 14(1), 33-59.
- 주진오. 1995. “19세기 후반 개화 개혁론의 구조와 전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덕수. 1978. “독립협회의 정체론 및 외교론 연구: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13, 197-233.
- 콘체, 베르너. 2021. “근대적 운동 속의 ‘민주주의.’” 라인하르트 코젤렉 · 오토 브루너 · 베르너 콘체 편.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7: 민주주의와

독재』. 125-179. 서울: 푸른역사.

한홍수. 2015. 『(도전과 응전의) 한국민족주의』. 고양: 옥당.

홍성준. 2001. “개화기 협성회 운동에 관한 연구.” 『숭실사학』 14, 1-30.

홍철기. 2018. “비밀 투표는 ‘민주적’인가?: 존 스튜어트 밀과 카를 슈미트의  
비밀 투표 비판.” 『정치사상연구』 24(1), 101-129.

#### 영문자료

Adcock, Robert. 2014. *Liberalism and the Emergence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A Transatlantic Ta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ellamy, Richard. 1992. *Liberalism and Modern Society: A Historical Argument*. Cambridge: Polity Press.

Blanning, T. C. W. 2008. *The Pursuit of Glory: The Five Revolutions that Made Modern Europe, 1648-1815*. New York: Penguin Books.

Choi, Young-Chan. 2020. “Philip Jaisohn, the Political Evangelist, 1896-98.” *Journal of Korean Studies* 25(1), 89-113.

Goldberg, David Theo. 2005. “Liberalism’s Limits: Carlyle and Mill on ‘The Negro Question’.” *Utilitarianism and Empire*, edited by Bart Schultz and Georgios Varouxakis, 125-136. Lanham, MD: Lexington Books.

Helderman, Leonard C. 1941. “The Virginia Bill Of Rights.” *Washington and Lee Law Review* 3(3), 225-245.

Jones, H. S. 2000. *Victorian Political Thought*.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Jones, Keith. 2013. *American Nativism and Exclusion: The Rise and Fall of the Immigration Restriction League, 1894-1921*.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Liberal Studies Theses and Dissertations.

Lombardo, Paul A. and Gregory M. Dorr. 2006. “Eugenics, Medical Education, a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nother Perspective on the Tuskegee Syphilis Experiment.”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80(2), 291-316.

Mehta, Uday Singh. 1999. *Liberalism and Empire: A Study in*



*Nineteenth-Century British Liberal Though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ill, John Stuart. 1977.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 19. Toronto and Buffal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rice, Richard. 1789. *A Discourse on the Love of Our Country, delivered on Nov. 4, 1789, at the Meeting-House in the Old Jewry, to the Society for Commemorating the Revolution in Britain. With an Appendix*. London : T. Cadell.

Ryan, Alan. 2012. *On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

Tikhonov, Vladimir. 2010. *Social Darwinism and Nationalism in Korea: The Beginnings(1880s-1910s)—“Survival” as an Ideology of Korean Modernity*. London, Boston: Brill.

Abstract

**The Radicalization of the Independence Club's  
Democratic Thought:  
From Paternalism to Political Activism**

Hyun Kim ■ Yonsei University

To explain the ideological nature of the Independence Club's popular movement in 1898,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l change in the political thought of the club's newspaper, *Tongnipshinmun*. In contrast to traditional studies' focus on its democratic nature and revisionist studies' attention to its elitist character, this paper tries to address both sides by delving into the internal change we can grasp in the *Tongnipshinmun's* thinking. It argues that *Tongnipshinmun's* democratic thought, by being based on liberal ideas, prompted its initial paternalistic attitude toward the Korean people. However, due to the Korean government's failure to institutionalize monarchical power and the subsequent misrule of King Kojong, *Tongnipshinmun's* patriotic discourse shifted toward resistance ideology, imbuing the members of the Independence Club with political activism. As a result, their view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was also radicalized, as reflected in their participation in the popular movement of 1898.

Key Words: *Tongnipshinmun*, liberalism, democracy, paternalism, patriotism, radicalization